



긴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메일을 보고 왠지 문득 쓰고 싶어져서 쓰게 된 편지입니다.

양님은 절 모르시겠지만, 저도 사실 어떻게 양님의 편지를 받게 되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일상과 생각들을 들여다보며,
웃기도 하고 위로도 받는 진귀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덕분에.
그래서 왠지 제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보답이라기엔 거창하고, 한 번쯤은 잘 보고 있다고 손 흔들고 싶어서.

이번 여행의 테마는 솔플이었어요.
나한테 집중하고 머리를 비우고 싶어서, 동행도 구하지 않았고 복직이는 변화가는 피해가며 동선을 짰고.
근데 참 웃겨요.
피하려고 하니 오히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말을 걸어요.
자기 일상을 먼저 들려주고 나에게도 질문을 던져요.
그러다보니 매순간 사람에게 에너지를 받고 영감을 얻는 여행이 되어버렸지 뭐예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생각했어요.
취향이 견고한 삶을 살도 그만쯤 타이틀 향한 시선을 저버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양님, 앞으로 이렇게 소식 들려주세요.
저도 늘 소식을 궁금해하며 가끔 이렇게 안부를 전할게요.
세상 어딘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완벽하지 않은 타인이 있다는건,
그 자체로도 위로가 되니까요.